



## 2023년도 침례식



2023년 7월 17일 (월, 축일), 아끼가와 기도원에서 침례식이 거행되어 32명의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

### 목 차

- P2 : 침례식 @아끼가와 기도원
- P3 : 홋카이도 선교 & 침례식
- P4 : 오사카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 P4 : WCBA, WAKB 총회 및 개막예배
- P5 : 하얀민들레 야외식당
- P6 :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
- P7 : 고명진 목사 축복성회
- P8 : 담임목사 컬럼 “고난을 만날 때”
- P8 : 선교대회에서 일본 선교상황을 보고

Web 사이트에서 가족신문 최신 기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gtc.news>

### 공지



#### 삿포르신학교 제 3기생 모집 중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sapporobible.college>) =>



#### 민들레 어린이 식당 & 문화교실 홈페이지 개설

2023년에는 8/11, 9/18, 9/23, 10/9, 11/3, 11/23 에 개최됩니다.

홈페이지 (<https://tanpopokitchen.jp/>) =>



#### 하얀민들레 야외식당 홈페이지 개설

매주 토요일 11:30 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합시간은 10시입니다.

홈페이지 (<https://shirotanpopo.jp/>) =>





# 침례식 @아끼가와 기도원 2023. 7. 17 (월, 축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 로마서 6:3-5 —

2023년 7월 17일 (월, 축일), 아끼가와 기도원에서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에 침례를 받는 성도는 32명으로 침례식을 위해 3번의 침례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침례식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침례식을 진행하기 앞서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는 침례식 예배를 인도하였고, '침례 (로마서 6:3~5)'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없이 살았던 옛날의 자신은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오늘날 세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세례를 받으면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침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 모인 많은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의 기대 속에서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침례식이 끝난 후에는 식사교제를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침례식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사람이 된 성도들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 훗카이도선교 축복성회 & 침례식

2023. 7. 13 (목) ~ 15 (토)

## 축복성회 7월 14일 (금)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 시편 23:1-6 —

7월 14일 (금), 샛포로성전의 성도들과 손수 만든 한국요리를 함께 나누며 식사 교제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식사교제가 끝난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축복성회가 열렸습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4차원(시편 23: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근거는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긍정적 생각의 연장선은 꿈인데, 꿈을 가지면 목표가 정해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꿈이 이뤄진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꿈이 성취됩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야훼로이, 살롬 등 하나님의 7가지 이름에 대해 강해하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꿈이 성취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 로마서 6:3 —

## 침례식 @조산케이 7월 15일 (토)

7월 15일 (토), 샛포로성전에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침례받는 성도를 대상으로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인생을 걷고 새로운 부활의 날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침례식은 온천과 단풍이 유명한 조산케이(定山溪)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침례식 준비가 끝난 후, 신학생과 선교팀의 찬양과 함께 침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침례를 받은 류빈웅 성도는 새롭게 거듭나 얼굴이 밝게 빛났습니다.

이 날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진행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오사카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2023. 6. 27 (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시편 1:1-3 —

6월 27일 (화), 오사카순복음교회에서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열렸습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총무목사, 긴시초 지성전 담당목사 등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장기간 사역과 헌신을 해 온 양형근 목사가 오사카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사카순복음교회는 동경 다음으로 큰 대도시 오사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영혼 구원활동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번 취임예배는 순복음카사이교회 오민우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순복음나리타교회의 세노 미츠키 담임목사가 대표기도를, 센다이순복음교회의 신용국 담임목사가 성경봉독을, 순복음후나보리교회의 앤도우 타카시 담임목사가 헌금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오사카순복음교회의 성도와 일본 전역의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양형근 목사의 담임목사취임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복 있는 사람”(시편 1:1-3)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인이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고, 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목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 후에 취임식이 거행되어 양형근 목사의 선서와 인사가 있었고, 양형근 목사는 “오사카순복음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오사카순복음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양형근 목사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2개의 대도시 동경과 오사카가 더욱 연대해 일본 1천만 구원을 위한 활동이 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WCBA, WAKB 총회 및 개막예배 2023. 5. 9 (화)-12 (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18-20 —

WCBA와 WAKB의 총회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순복음동경교회와 아사쿠사부 호텔에서 “복음을 담은 미디어,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시가끼 시게마사목사가 준비대회장을 역임해 순복음동경교회가 준비를 이끌었고, 한국,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이 참가했습니다.

WCBA(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와 WAKB(세계한인방송협회)는 전 세계에서 라디오와 TV,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인 기독교 방송인들의 모임으로 교민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5월 9일 (화) 오후 7시, 순복음동경교회 대성전에서 개막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영훈 목사(WCBA이사장)는 ‘성령과 선교’(마태복음 28:18-20)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고 선교를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로 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각국에서 오신 한인 방송관계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본에도 기독교방송이 있으면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회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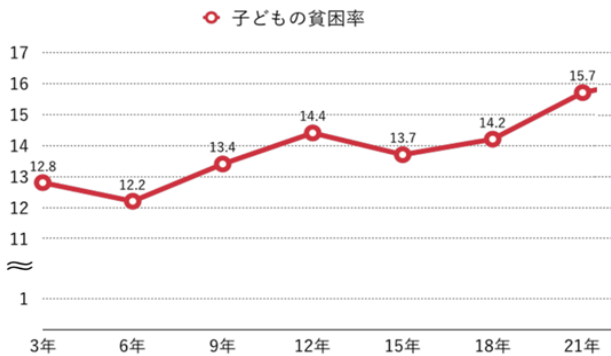
# 아이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

##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의 설립배경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7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약 16%의 어린이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한 교육격차의 확대는 해결방안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진국의 상대적 빈곤에는 다음과 같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2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경제력 격차의 확대나 그에 따른 열등감과 불평등감, 세상에 대한 불만과 포기 등 아이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문제는 더욱 복잡화되었습니다.



※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발취

### 좁은 의미

경제적 사정에 의한 표준 이하의 생활  
경제적인 사정으로 식사, 생활필수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또는 대다수 사람들과 비교해 생활의 질이 떨어진 상태  
(예: 영양균형이 나쁜 식사 등)

### 넓은 의미

경제적 사정이 배경이 되는 전반적 문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 부모부담의 증가로 인해 보통의 사회적 접점과 교육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태  
(예: 학습포기 등)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순복음동경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을 설립해 아이들에게 식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표면적인 경제적 빈곤가정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에 의해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 아이와 그 가정에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의 개요와 향후 비전

어린이식당은 영양균형과 건강증진을 충분히 고려해, 엄선한 식재료로 손수 만든 따뜻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에서는 문화체험과 배움이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합니다.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 각각 모두 무료 제공됩니다.

2023년에는 공휴일에만 개최할 예정이지만, 향후 개최 횟수와 문화교실 학습범위를 확충해 서서히 규모를 크게 하기위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사정에 의해 사회에서 소외되었거나 불행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일반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지 않을 만한 교육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며 키울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키는 것이 순복음동경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꾸는 비전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걷는 사업이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의 활동상황

5월 5일 어린이날에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제 1회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이 개최되었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처에서 전단지 배부하였고,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다수의 친구들에게 알려 데리고 오기도 하여 총 47명의 어린이가 모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시가키 시계마사 담임목사가 기도로 인도하

였고 미니 콘서트로 참석한 아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미니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어학’, ‘음악’, ‘IT’, ‘미술’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문화교실이 열렸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기획이 활기를 띠어 아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지지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교회가 지역사회로 나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 하얀민들레 야외식당

## 하얀민들레 야외식당이란? 설립배경과 사업내용을 다시한번 해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현상은 건강피해와 의료 압박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영향과 인간관계 단절 등 여러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특히 순복음동경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주쿠지역 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노상 거주자와 실업자 증가는 물론 수입이 감소한 건강한 젊은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독거노인 등 가족이나 행정자치와 민간 자선단체의 지원이 닿지 않는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복음동경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며 하나님께로 세상 백성을 인도하는 것”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미신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 은혜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활동을 소개

하얀민들레 야외식당은 매주 토요일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신주쿠 주변 공원(당분간 장소는 매주 변경됨)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린 후 식사교제를 나눕니다.

현재는 노상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단지 배부해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예배 참가자가 이미 100명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이나 공원 관리자와도 양호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향후 이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선전을 위해 인터넷활용 등도 검토해 나가면서 300명이 모이는 예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하얀민들레 야외식당 민들레 어린이식당&문화교실

민들레는 영어로 댄디 라이언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의 사이에서도 성장하며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강한 이미지의 꽃입니다. 그 한편, 식용으로 쓰이고 뿌리의 경우 약용으로 쓰이는 헌신적인 꽃이기도 합니다. 또 씨가 먼 곳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러한 민들레생태와 같이 우리가 강하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길 바라며 “민들레”란 이름을 각각 붙이게 되었습니다.

## 이름의 유래와 그 의미에 담은 소망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에 붙인 ‘민들레’의 꽃말은 “진실된 사랑”과 “행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민들레 야외식당’에 붙인 ‘하얀민들레’의 꽃말은 “나를 바라봐, 나를 찾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 그대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고명진 목사 축복성회

2023.5.3(수) ~5(금)

2023년 5월 3일~5월 5일,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인 고명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고명진 목사는 성회 3일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성경말씀으로 풀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성회 첫 날 (5월 3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 사도행전 7:54-60 —

성회 첫 날, 고명진 목사는 '스테반(사도행전 7:54-60)'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순교한 복음의 증인으로 주목받는 스테반은 성령과 말씀, 믿음, 지혜, 권세 등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이며 대접하는 자였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공생애 속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 인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복음전파자입니다."라고 스테반이란 성경인물에 대해 강해하였고,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 성회 둘째 날 (5월 4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 열왕기상 17:1 —

성회 둘째 날은 '엘리야(열왕기상 17:1)'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성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것으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 승리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져 겁쟁이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 될 때가 있으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있다는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하며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를 축복했습니다.



## 성회 마지막 날 (5월 5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후략-  
— 빌레몬서 1:1-25 —

성회 마지막 날, 고명진 목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빌레몬서 1:1~25)'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골로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오네시모. 고명진 목사는 이들이 주인과 노예가 아닌 믿음의 형제가 된 것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고,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용서와 회개를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빌레몬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받아들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를 격려했습니다.

#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 컬럼

## “고난을 만날 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 야고보서 5:13 —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자신이 범한 실수나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고난을 만나면 ‘혹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일, 예배를 소홀히 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일,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던 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일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들은 회개하지 않게 되겠지요.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때가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기회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맞을 때 그때야 말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여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합시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적대하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의 속성은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본성이 간단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회개와 헌신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환경적 축복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빛나는 태양,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오크백과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게 되며, 친구나 이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명 3개월을 선 고받은 어느 청년의 일기를 보면 식사에 감사하고, 씹으면

서 맛을 느끼고, 한잔의 물도 천천히 마실 수 있는 기쁨을 알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들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집을 떠났을 때 가정, 가족에게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감사를 배우기 위한 교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시50:23) 평소에 없는 것을 찾으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던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고난은 인생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 불평불만은 독초가 되고, 감사는 양약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은 기도를 배우게 하는 채찍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간절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배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시 91:15),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렘 33:3),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며 요동치 않게 됩니다. 고난은 심신에 충격을 가하는 대사건입니다. 과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 없는 순금으로 제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 선교대회에서 일본 선교현황을 보고 2023. 5. 31 (수)



5월 31일(수),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세계선교대회가 열려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함께 순복음동경교회의 교역자들도 참가했습니다.

순복음일본총회장인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서두 인사로 순복음동경교

회의 행적을 되돌아보았고, 양형근 목사가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일본 기독교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기독교인의 인구는 0.4%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주일예배 참가자는 불과 0.2%밖에 안되는 어려운 현황이라는 것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교단, 교회에서 성도가 15% 감소하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는 점도 공유했습니다.

그 반면, 성령운동을 펼치는 우리 오순절파에 대해서는 오히려 15% 성장해 선교 성과가 오르고 있다는

것도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선교활동 중 하나로 샷포로신학교를 설립해 일본 선교에 힘을 발휘할 선교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과 100개의 교회 설립을 목표로 하는 비전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는 1000개의 교회개척이라는 선교비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순복음일본총회가 그 중 10%를 담당해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일본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선교 보고를 끝맺었습니다.